

정적과 부정적 감정이 부재하는 중립태도와 공존하는 중립태도에서 인상형성의 차이

이수원 · 이지연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중립태도의 두가지 유형 즉,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과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간에 정보처리양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려 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불일치된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전자에서는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평가적 의미에서 서술적 의미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실험의 결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감정공존 중립태도에서는 감정부재 중립태도와 달리 실험에서 제시한 평정차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제시된 자극특성들의 의미를 달리 지각하였다.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는 자극특성들의 평가적 의미를 지각하며, 서술차원일 때는 서술적 의미를 지각하였다. 둘째, 감정공존 중립태도에서는 감정부재 중립태도와는 달리 제시된 자극인물이 평가적 의미에서 불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서술적 의미에 근거해서 통합하는 반면에 서술적 의미에서 불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평가적 의미에 근거해서 통합하였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인상형성이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태도는 양극적 평정척도상에서 측정되었다. 양극적 평정척도(bipolar rating scale)는 한쪽 극단이 부정 감정으로 대표되며 반대쪽 극단이 정적 감정으로 대표되는 연속선을 가리킨다. 이 연속선의 중간은 중립태도를 나타낸다. 이 연속선상에서의 특정 위치로서 개인의 태도를 대표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아닌 중립태도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중립태도란 주어진 태도 대상에 대하여 단순한 무관심 또는 무지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감정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기서 전자는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

중 그 어느 쪽도 취택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것이라면, 후자는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 중 양쪽 모두를 취택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태도측정에서는 이 두 상태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모두 중립태도로서 대표시켰다(Cacioppo & Berntson, 1994).

그러나 이 두 중립태도가 비록 겉으로 표현된 태도는 같을지라도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벗어난 중립태도를 Converse(1964)는 비태도(nonattitude)라고 명명하였다. 비태도는 글자 그대로 태도가 '없다'는 것을 가

리킨다. 한편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에 대해서 양쪽 모두를 취택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경우는 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태도는 있되 양쪽 태도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때 나타나는 중립 태도는 과연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가? 그동안 대두된 지배적인 견해는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양가 감정(ambivalent affect)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가감정은 한 대상에 대하여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동시에 함께 느끼는 상태를 나타낸다.

Abelsen, Kinder, Peters 및 Fiske(1982)는 정치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들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정치인에 대하여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따로 측정했을 때 그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그를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갖고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가감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Katz(1981)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양가감정이 주로 장애인이나 소수집단과 같은 낙인받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양가감정은 동일인물에 대하여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낌으로서 야기되는 갈등을 문제삼은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양가감정을 갖게 되면 두 감정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가감정을 느끼는 대상에 대하여 반응의 증폭화(amplification)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반응의 증폭화는 낙인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하는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자아개념의 위협으로부터 야기된다. 낙인받은 사람에 대한 비호의적 반응은 자신의 호의적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자아상이 위협을 받게 되며, 한편 호의적 반응은 자신의 비호의적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자아상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자아상에 대한 위협은 긴장을 낳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취한다는 것이

다. 그의 생각은 사람들이 한 대상에 대하여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되면 자신의 반응에 대하여 비일관성을 느끼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아방어기제 중에 하나인 '반동형성'과 같은 일종의 병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기존의 신념복잡성에 관한 연구들 특히, 통합적 복잡성에 관한 연구들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Tetlock(1986)은 통합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 즉, 정적신념과 부정신념을 함께 통합하여 갖고 있는 사람은 통합적 복잡성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자국시장의 개방과 국내산업의 보호, 국가치안의 유지와 개인의 권리보호와 같은 딜레마에서 통합적 복잡성이 높은 사람은 양쪽의 가치를 모두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에 통합적 복잡성이 낮은 사람은 한쪽의 가치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통합적 복잡성이 높을 때는 태도대상에 대하여 양가감정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양가감정이 병리적 반응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대상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했다.

한 개인내에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한다는 것은 사실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쌍방이 각각 가지고 있던 태도들을 한 개인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간에서 갖고 있던 태도를 개인내에서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태도대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어진 태도대상을 자신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한 개인내에 공존할 때 그의 태도가 양가감정을 갖게 되어 자아상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견해는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할 때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하는 문제를 기존의 태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태도차원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양극으로 하는 양극적 평정척도를 일컫는다. 이 척도상에서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의 공

존상태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의 공존상태를 어떻게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의 공존상태는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양극으로 하는 평정척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양극적 평정척도는 정적 감정에서 부정 감정까지 태도를 양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태도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거나 무관심하여 비태도 상태라든지 또는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는 이와 같은 척도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리하여 Cacioppo와 Berntson(1994)은 최근에 태도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비태도 상태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기존의 양극적 척도와는 독립된 차원상에서 기술하는 태도의 차원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모형에서도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할 때 양가 감정을 갖는다고만 언급하였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전개시키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할 때의 태도는 어떤 차원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수원(1995)은 최근에 한 개인내에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게 되면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 자체가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언어학에서는 일찍부터 말의 내포적 의미를 정보적 내포(informative connotation)와 감정적 내포(affective connotation)로 구분하였는데 Peabody(1967)는 이를 심리학에 받아들여 전자를 서술차원의 의미로 후자를 평가차원의 의미로 명명하였다. 여기서 서술차원의 의미는 사물의 양태를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이며, 평가차원의 의미는 사물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이다. 예컨대, '쓰레기'나 '암'과 같은 말은 그것들이 어떤 사물을 지칭한다는 서술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럽다'나 '싫다'라는 평가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태도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개인내에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

하게 되면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지 않고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준거차원이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정적 감정의 준거가치와 부정 감정의 준거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 개인이 양쪽의 준거가치를 동시에 함께 갖게 되면 준거가치의 차원이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태도대상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준거가치 차원이 '정의'가치(불의하다-정의롭다)인 반면에 부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가치(비인도적이다-인도적이다)이다. 따라서 그들은 태도대상을 '불의하다-정의롭다'나 '비인도적이다-인도적이다' 즉, '나쁘다-좋다'의 평가차원에서 보게 된다. 그리하여 전자에서 볼 때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으로서 '좋은 것'이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서 '나쁜 것'이다. 후자에서 보게 되면 이와 반대가 된다. 이 때에는 '정의'가치나 '인도'가치의 의미가 평가적 의미로만 쓰인다.

그러나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게 되어 정적 감정의 준거가치와 부정 감정의 준거가치를 함께 가지게 되면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롭기는 하지만 비인도적이라고 보게 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이지만 불의하다고 보게 된다. 즉, 이 때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정의'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제도인 반면에 후자는 '인도'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제도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정의가치와 인도가치의 서술적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그리하여 이렇게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지는 대상의 의미도 서술적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와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의 차이는 전자는 주어진 대상을 '정의롭다' 또는 '인도적이다'와 같이 가치속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반면에 후자는 '좋은

다' 또는 '나쁘다'와 같이 호오속성에 따라서 지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후자는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이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나쁜 것(또는 좋은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정의와 인도중 어떤 가치가 보다 중요한가 즉, '가치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사형제도의 시행과 폐지중 어떤 제도가 보다 좋은가 즉, '호오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한 개인내에 공존하여 태도가 중립화될 때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 자체가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뀐다는 이와 같은 생각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태도대상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에는 개인의 태도가 가치선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에는 개인의 태도가 호오평가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게 된다. 이 예언에 대하여 최근에 박광엽(1995)은 기업종사자에게 임금제도로써 '인화'가치를 중시하는 연공서열제와 '능력'가치를 중시하는 능력급제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다. 이 때 기업이 직면한 상황으로 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상황과 인화의 도모가 시급한 상황을 조작하였다. 그 결과 능력과 인화의 양쪽 가치를 동시에 중시하는 피험자들은 어느 한쪽 가치만을 중시하는 피험자들 보다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수원과 박광엽(1989)은 피험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한 후 그들이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이들 사건을 지각하는가에 따라 '공정'가치 선호집단, '인정'가치 선호집단, 및 양쪽가치를 동시에 선호하는 확대조망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들에게 교통경찰이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이를 '적발하는 행위'와 '묵과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하여 공정 또는 인정선호 집단에서는 태도가

극단화하는 반면에 확대조망 집단에서는 태도가 중립화되었다. 그러나 물음을 달리해서 이 두 행위가 각각 얼마나 공적인 행위인가 혹은 사적인 행위인가를 판단시켰을 때에는 확대조망 집단에서는 적발행위를 공적으로 묵과행위를 사적으로 양극에서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공정 또는 인정선호 집단에서는 판단이 중립화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확대조망 집단은 주어진 행위에 대한 지각이 서술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반면에 공정 또는 인정선호 집단 즉, 축소조망 집단에서는 평가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할 때 타인에 대한 인상을 어떤 차원에서 형성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중립태도의 두가지 유형 즉, 태도대상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립태도와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립태도간의 인상형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양자는 겉으로 드러난 태도는 같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이 양자에서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인식차원이 같지 않다. 전자에서는 태도대상을 평가차원에서 인식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평가차원과 함께 서술차원에서도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인식차원에서의 차이를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오래동안 논쟁이 되어온 쟁점중에 하나는 Asch(1946)의 의미변화설과 Anderson(1966)의 가중평균설 간의 논쟁이다. 의미변화설에서는 인상형성에서 제시되는 성격특성들이 전체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될 때 전체인상에 쫓아서 개개의 성격특성들의 의미 자체가 변화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영리하다'라는 성격특성이 사기꾼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사용될 때에는 '타인을 속이는 능력'으로 변화되지만, 과학자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사용될 때에는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가중평균설은 전체인상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로 통합될 때 개개의 성격

특성들의 척도치 또는 의미는 변화되지 않으며 각각의 특성별로 무게를 달리하여 평균으로 합산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난기 있다'는 성격특성이 다른 긍정적(또는 부정적)특성들과 통합될 때 그 특성이 보다 긍정적(또는 부정적)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특성들로부터 나오는 후광효과(halo effect)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 특성의 척도치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변화설과 가중평균설 간의 이와 같은 논쟁은 이들이 인상형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가중평균설은 모든 성격특성들로부터 한 인상차원 즉, '좋다-싫다' 차원에서의 척도값을 산출하여 이 차원에서 성격특성들이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밝히려 한 것이라면(Shanteau & Nagy, 1984), 의미변화설은 성격특성들의 의미가 좋다-싫다의 차원만 가지고는 충분히 표현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타인에 대한 인상을 다차원 공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Hinton, 1993). Asch와 Zukier(1984)는 사람들이 불일치된 성격특성들 예컨대, '충명하다'와 '우둔하다'를 통합할 때는 좋다-싫다와 같은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차원 예컨대, '공부는 잘하나 사회생활은 백치이다'와 같이 판단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는 좋다-싫다차원상에서의 성격특성들이 갖고 있는 의미 즉,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가 아니라, 성격특성들이 갖고 있는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Peabody(1967)는 모든 성격특성들에는 평가적 의미뿐만 아니라 서술적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가중평균설은 성격특성들이 갖고 있는 평가적 의미만을 가지고 인상통합을 시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의미변화설은 성격특성들이 갖고 있는 평가적 의미뿐만 아니라 서술적 의미에도 주목하여 인상통합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사람들은 성격특성들을 가지고 인상을 형성할 때 그것들의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통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것들의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도 통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상을 통합하는 경우는 주어진 성격특성들이 평가적 의미에서 서로 불일치하여 모순될 때 일어난다. 이 때 평가적 의미에서는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개의 성격특성들이 갖고 있는 서술적 의미에 관심을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어진 성격특성들을 그것들의 서술적 의미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변화설과 가중평균설간의 이러한 논쟁을 위에서 말한 중립태도의 두 가지 유형간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중립태도에서는 주어진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에서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중립태도에서는 평가적 의미와 함께 서술적 의미에서도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상의 통합이 전자에서는 가중평균설에서 제시하는 원리에 쫓아 이루어지지만 후자에서는 의미변화설에 쫓아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인상통합의 원리가 개인의 태도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정적과 부정 감정이 부재하는 중립태도에서는 주어진 대상을 평가적 의미에서 밖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의 인상형성은 평가차원에서의 인상의 통합을 다룬 가중평균설에 의하여 잘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정적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는 중립태도에서는 주어진 대상을 평가적 의미와 함께 서술적 의미에서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의 인상형성은 다차원 공간에서의 인상의 통합을 다룬 의미변화설에 의하여 잘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정적과 부정 감정이 부재하여 일어나는 중립태도에서는 인상이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만 형성되는 반면에 정적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여 일어나는 중립태도에서는 평가적 의미와 함께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도 형성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본 실험의 피험자는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이 부재하는 중립태도(감정부재 중립태도)집단 27명,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이 공존하는 중립태도(감정공존 중립태도)집단 27명이었다.

감정부재와 감정공존 중립태도집단의 선발

본 실험에서 감정부재 중립태도와 감정공존 중립태도의 두 피험자집단을 선발하기 위하여 사전에 118명의 대학생들에게 정치적 태도에서의 준거가치 분석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피험자들이 어떤 준거가치에 입각해서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본 실험에서 선정한 태도주제는 최근에 대학캠퍼스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학생시위'를 택하였다. 이 주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두 정당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P당의 주장: 최루탄 세례와 위압적인 사복체포조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단순히 학생들의 과격시위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전경을 죽이려고 화염병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려 해도 원천봉쇄다, 경비강화다 해서 학생들의 입을 틀어 막고 손을 뒤로 묶는다면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따라서 학생의 권리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생들의 시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K당의 주장: 대학생들은 사회가 썩었고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갈수록 폭력적인 시위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 사회가 유지될 때만이 학생운동도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정된 사회속에서 학생들의 학업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사회의 안전과 유지를 위하여 학생시위는 저지되어야 한다.

사전조사에서 위의 두 주장에 대한 대학생들의 준거가치들을 조사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보수가치와 진보가치의 두 가지 준거가치 요인을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다. 진보가치 요인은 자유롭다-억압적이다, 개

방적이다-폐쇄적이다, 발전적이다-정체적이다, 창조적이다-비창조적이다, 미래지행적이다-현상유지적이다의 5개의 준거가치가 뽑혔으며, 보수가치 요인은 안전하다-위험하다, 안정적이다-불안정하다, 포근하다-긴장된다, 침착하다-성급하다, 예측할 수 있다-예측할 수 없다의 5개의 준거가치가 뽑혔다.

그리하여 이들 10개의 준거가치들을 가지고 의미미분척도를 제작하여 'K당의 주장'과 'P당의 주장'을 각각 이들 척도상에서 평정시켰다. 평정은 7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의 반응은 보수가치와 진보가치의 두 준거가치 차원에서의 변별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보수가치 변별값은 위에서 제시한 보수가치에 해당하는 5개의 의미미분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였으며, 진보가치 변별값도 5개의 의미미분척도의 점수를 평균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수가치 변별값 y는 K당의 주장과 P당의 주장을 보수가치 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이며, 진보가치 변별값 x는 진보가치 차원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거리이다. 각 거리의 계산은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공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여기서 이들 거리는 사람들이 주어진 가치차원에 준거해서 두 정당의 주장을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들 거리가 클수록 두 정당의 주장을 주어진 가치차원에 입각해서 지각하는 것이다.

중립태도의 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얻어진 진보가치와 보수가치 변별값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각각 피험자들을 양분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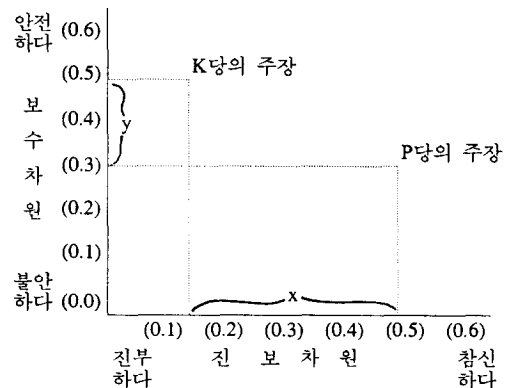


그림 1. 학생시위에 대한 보수가치와 진보가치 변별값

따라 피험자들을 진보와 보수의 양쪽 모두에서 높은 집단, 진보는 높고 보수는 낮은 집단, 진보는 낮고 보수는 높은 집단, 및 진보와 보수의 양쪽 모두에서 낮은 집단의 4집단을 나누었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에서 변별값이 모두 높은 집단과 진보와 보수에서 변별값이 모두 낮은 집단의 두 집단을 선정하여 전자를 정적과 부적 감정이 공존하는 중립태도(감정공존 중립태도)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후자를 정적과 부적 감정이 모두 부재하는 중립태도(감정부재 중립태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두 집단에서 학생시위에 대한 태도가 감정공존집단에서는 $M=4.15$ 였으며, 감정부재집단에서는 $M=4.97$ 로 나타나 양집단 모두에서 태도가 중립적임이 드러났고 두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렇게 가치변별값을 이용하여 감정공존집단과 감정부재집단을 구분지은 것은 가치변별값과 태도의 상관성이 일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와 가치변별값 자체가 태도측정의 또 다른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학생시위에 대한 태도와 진보가치 변별값간의 상관은 .76이 나왔으며 보수가치 변별값간의 상관은 -.71이 나왔다.

실험자료의 선정

실험자극으로서 선정된 성격특성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을 나타내는 특성들로 제한하였다. 국어사전에서 진보성향 또는 보수성향을 나타낸다고 보이는 총 98개의 성격특성들을 선정하여 그것들이 얼마나 진보특성 또는 보수특성을 나타내는가(서술적 의미값)와 좋은 특성 또는 나쁜 특성을 나타내는가(평가적 의미값)를 예비조사를 통하여 41명의 대학생들로부터 평정을 받았다. 평정은 서술적 의미값은 보수적이다(0)-진보적이다(10)의 11점 척도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가적 의미값은 나쁘다(0)-좋다(10)의 11점 척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얻어진 각 특성의 서술적 의미값과 평가적 의미값을 토대로 진보(R)의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 각각 10개와 보수(C)의

표 1. 보수와 진보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값과 평가적 의미값

진보특성	서술값	평가값	보수특성	서술값	평가값
R+			C+		
미래지향적이다	9.20	8.33	안전하다	3.83	7.73
창조적이다	8.83	9.03	포근하다	4.40	8.47
도전적이다	8.43	7.23	안정적이다	4.43	7.03
발전적이다	8.03	8.57	튼튼하다	4.60	7.27
자유롭다	8.30	8.33	침착하다	4.45	7.43
자율적이다	7.90	8.07	예측할 수 있다	4.23	6.07
경쟁력있다	8.70	6.77	원칙적이다	4.60	4.60
다채롭다	7.97	7.23	차분하다	4.33	6.67
개방적이다	8.63	7.47	성실하다	4.63	8.47
혁신적이다	8.50	7.13	고결하다	3.90	6.40
R-			C-		
위험하다	6.00	2.00	현상유지적이다	2.20	3.90
인위적이다	5.03	3.30	억압적이다	1.97	1.20
긴장된다	6.33	4.67	비창조적이다	2.47	2.43
경솔하다	5.57	2.27	활기없다.	2.87	2.03
불안정하다	6.27	2.17	정체적이다	2.77	3.07
불안하다	8.50	2.37	폐쇄적이다	1.27	1.50
성급하다	6.03	3.50	노쇠하다	2.30	2.73
예측할 수 없다.	6.23	3.97	상투적이다	2.30	3.00
무원칙적이다	5.23	3.93	감감하다	2.33	1.83
급박하다	6.37	4.27	따분하다	2.40	2.77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 각각 1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값과 서술적 의미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1%에서 중립점(평가값과 서술값 모두 5)으로부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이었다. 표 1에 이렇게 선정된 40개의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값(평가값)과 서술적 의미값(서술값)을 제시하였다.

실험자극의 구성

표 1에서 제시된 성격특성들을 가지고 실험자극을 제작하였다. 실험자극은 모두 8종류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실험자극은 4개의 성격특성들로 구성되었다. 성격특성들의 구성은 실험자극에 따라서 모두 달리 구성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R+R+R+R+, R-R-R-R-, C+C+C+C+, C-C-C-C-, R+R+C+C+, R-R-C-C-, R+R+R-R-, C+C+C-C-의 8가지였다. 여기서 앞에 4가지는 서술값과 평가값이 모두 일치하는 실험자극이며, 다음에 나와있는 2가지는 평가값은 일치하지만 서술값은 불일치하는 실험자극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가지는 서술값은 일치하지만 평가값이 불일치하는 실험자극이다. 각각의 실험자극에서 성격특성들의 제시순서를 서로 상쇄하기 위하여 표 1에 나와있는 다양한 성격특성들을 이용하여 모든 실험자극에서 성격특성들의 제시순서가 서로 다른 4가지 종류의 자극을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각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는 실험자극은 모두 8개였지만 그들이 받는 성격특성들의 제시순서는 피험자마다 달랐다.

종속변인의 측정

각각의 실험자극에 대한 판단은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 전반적 인상에 대한 평정은 싫다-좋다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평정은 싫다(-3)부터 좋다(+3)까지의 7점척도상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주어진 인물에 대한 서술적 의미차원에서의 평정은 보수와 진보가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수가치 차원은 불안하다(-3)-안전하다(+3)차원에서, 진보가치 차원은 진부하다(-3)-참신하다(+3)차원에서 평정되었다. 셋째, 주어진 인물에 대한 평가적 의미차원에서의 평

정으로서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두 특성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적특성은 어리석다(-3)-현명하다(+3)차원에서, 정적 특성은 차갑다(-3)-따뜻하다(+3)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각각의 실험자극에 대하여 이들 5가지 의미미분차원에서 평정시켰다.

실험절차

실험의 진행은 본 실험에서 피험자로 선발된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부재하는 집단과 공존하는 집단 뿐만 아니라 피험자 선발에서 탈락된 집단까지 포함된 전체집단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실험자극들을 인쇄한 유인물을 피험자들에게 배부한 후 본 실험은 정치가들에 대한 인상형성에 관한 실험이라고 소개하였다. 아래 제시된 8명의 정치가에 대하여 자세히 읽은 후 각 인물에 대하여 5가지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도록 시켰다. 실험자극의 제시는 알파벳 문자로 특정정치가(예, T정치가)를 지칭한 후 그 밑에 4개의 성격특성을 굵은 글씨로 일자로 나열하였다. 이 때 준 지시는 '아래에는 특정 정치가의 성격특성 4가지를 나열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개별특성을 잘 읽어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해 보십시오'였다. 판단시간은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가능한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결 과

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성격특성들의 제시순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순서가 서로 다른 4집단에서 인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실험자극을 통합한 전체 자료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3,104)=.59, n.s.$). 실험자극별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전반적으로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결과분석에서는 4집단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일치정보에 대한 분석

실험에서 제시된 자극인물중에서 평가적 의미와 서

표 2. 일치특성 자극인물에 대한 좋다-싫다 차원에서의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집단	자극인물의 특성			
	진보(R)		보수(C)	
	정적(+)	부적(-)	정적(+)	부적(-)
감정공존집단 (n=26)	6.04 (.98)	1.92 (.91)	5.04 (1.14)	1.72 (.89)
감정부재집단 (n=27)	5.25 (1.11)	3.00 (1.14)	4.33 (1.41)	2.48 (1.19)

술적 의미가 모두 일치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자극인물은 R+R+R+R+, R-R-R-R-, C+C+C+C+, C-C-C-C-의 4가지가 있었다. 이들 자극인물에 대하여 감정부재 집단과 감정공존 집단에서 인상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에서는 싫다-좋다 차원에서의 인상평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점수는 -3에서 +3까지의 원점수를 1에서 7까지의 점수로 환적하여 제시한 것이다. 4개의 자극인물에 대하여 각 집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 대하여 집단(감정공존·감정부재)×자극인물의 서술특성(진보·보수)×자극인물의 평가특성(정적·부적)의 3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주효과에서 자극인물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특성을 보수특성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50)=16.23, p<.001], 정적특성을 부적특성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50)=204.71, p<.001]. 집단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F(1,50)=15.84, p<.001]. 즉, 감정공존 집단에서 감정부재집단에 비하여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을 보다 양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특성은 보다 정적으로 부적특성은 보다 부적으로

평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과 자극인물의 서술특성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표 3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에서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적 의미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적과 정적의 두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지적차원은 어리석다-현명하다에서 그리고 정적차원은 차갑다-따뜻하다에서 측정하였다.

정적차원에서의 평정에 대한 집단×자극인물의 평가특성×자극인물의 서술특성간의 3원변량분석의 결과를 보면 위의 인상에 대한 분석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과 서술특성에서의 주효과가 위에서도와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집단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위에서도와 같이 나타났다[F(1,50)=8.09, p<.01]. 감정공존집단에서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을 보다 양극적으로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도 집단과 자극인물의 서술특성간의 상호작용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지적차원에서의 평정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과 서술특성에서 주효과가 앞에서와 같이 유의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와 달리 집단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표에서 보면 감정공존 중립집단이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을 양극으로 평정하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 경향이 진보특성에서만 나타나고 보수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와 표 3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자극인물을 싫다-좋다와 같이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평정할 때에는 집단의 효과가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 따라 나타나며 서술특성에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3. 일치특성 자극인물에 대한 평가적 의미차원(지적차원과 정적차원)에서의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정차원	자극인물의 특성			
		진보(R)		보수(C)	
		정적(+)	부적(-)	정적(+)	부적(-)
감정공존집단	지적차원	5.63(1.24)	2.15(1.08)	4.69(1.41)	2.42(1.21)
	정적차원	4.15(1.38)	3.00(1.23)	5.58(.86)	2.37(1.15)
감정부재집단	지적차원	5.23(1.07)	2.78(1.12)	4.81(1.27)	2.52(.98)
	정적차원	4.23(1.18)	3.67(1.11)	4.74(1.26)	3.04(1.26)

표 4. 일치특성 자극인물에 대한 서술적 의미차원(보수차원과 진보차원)에서의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집 단	평정차원	자극인물의 특성			
		진 보(R)		보 수(C)	
		정적(+)	부적(-)	정적(+)	부적(-)
감정공존집단	보수차원	3.41(1.60)	1.76(1.36)	5.88(1.18)	4.44(1.95)
	진보차원	6.59(.64)	3.50(1.61)	3.19(1.60)	1.56(.70)
감정부재집단	보수차원	3.50(1.27)	2.15(1.41)	5.52(1.22)	3.52(1.72)
	진보차원	5.54(1.33)	3.54(1.36)	3.56(1.42)	2.00(1.00)

표 4에서는 자극인물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평정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서술적 의미차원은 보수차원과 진보차원의 두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보수차원은 불안하다-안전하다 차원에서 진보차원은 진부하다-참신하다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보수차원에서의 평정에 대하여 집단×자극인물의 평가특성×자극인물의 서술특성의 3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자극인물의 서술특성에서 주효과가 매우 크게 나왔다(F(1,48)=64.20, p<.001). 보수특성은 안전하고 진보특성은 불안하다고 나왔다. 또한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 따라서도 정적특성은 안전하고 부적특성은 불안하다고 나왔다(F(1,48)=.61.46, p<.001). 그러나 이 결과에서는 위에서 얻어진 집단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신 집단과 자극인물의 서술특성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다(F(1,48)=4.13, p<.05). 즉, 감정공존집단은 감정부재집단보다 보수특성과 진보특성을 양극적으로 변별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자에서는 후자에서보다 보수특성은 더욱 안전한 것으로 진보특성은 더욱 불안한 것으로 변별하고 있다.

한편 진보차원에서의 평정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자극인물의 서술특성에서 주효과가 나왔다(F(1,49)=109.00, p<.001). 진보특성은 참신하고 보수특성은 진부하다고 나왔다. 또한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 따라서도 정적특성은 참신하고 부적특성은 진부하다고 나왔다(F(1,49)=167.79, p<.001). 이 결과에서도 집단과 자극인물의 서술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F(1,49)=4.60, p<.05). 감정공존집단은 보수특성과 진보특성을 양극단으로 평정한 반면에 감정부재집단

은 이 양자를 덜 극단적으로 변별하였다. 또한 위에서와 같이 집단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상에서 얻어진 평가차원에서의 결과와 서술차원에서의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감정공존집단의 특징은 주어진 평정차원이 어떤 차원인가에 따라 제시된 자극인물의 의미를 달리 지각하고 있다.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는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 입각하여 평정을 하고,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때는 자극인물의 서술특성에 입각하여 평정하고 있다. 평정차원이 어리석다-현명하다, 차갑다-따뜻하다와 같이 평가차원일 때는 집단간의 차이가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서 나타나고 서술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한편 평정차원이 불안하다-안전하다, 진부하다-참신하다와 같이 서술차원일 때는 집단간의 차이가 자극인물의 서술특성에서 나타나며 평가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것을 보여준다.

불일치정보에 대한 분석

실험에서 제시된 자극인물중에서 평가적 의미 또는 서술적 의미의 어느 한쪽에서 불일치하는 특성으로 구성된 자극인물은 R+R+C+C-, R-R-C-C-, R+R+R-R-, C+C+C-C-의 4가지였다. 여기서 앞의 두가지는 평가특성에서는 일치하지만 서술특성에서는 불일치는 자극인물이며, 뒤의 두가지는 서술특성에서는 일치하지만 평가특성에서는 불일치하는 자극인물이다. 이들 자극인물에 대하여 감정공존집단과 감정부재집단에서 인상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5는 이들 4가지 자극인물에 대하여 싫다-좋다 차원에서의 두 집단의 인상평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 불일치특성 자극인물에 대한 좋다-싫다 차원에서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집 단	자극인물의 특성			
	평가일치/서술불일치 R+R+C+C+	서술일치/평가불일치 R-R-C-C-	R+R+R-R-	C+C+C-C-
감정공존집단 (n=26)	5.89 (1.11)	2.04 (1.04)	3.19 (1.36)	2.58 (1.30)
감정부재집단 (n=26)	5.15 (1.05)	2.77 (1.14)	3.69 (.84)	2.89 (1.18)

제시된 자극인물에 대한 특성들이 평가적 의미에서는 일치하고 서술적 의미에서는 불일치하는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서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2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먼저 자극특성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F(1,50)=162.24, p<.001]. 정적특성을 부적특성보다 좋게 보고 있다. 또한 집단과 자극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F(1,50)=8.93, p<.01]. 감정공존집단에서 감정부재집단보다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을 더 양극적으로 변별하고 있다. 즉, 정적특성은 보다 정적으로 부적특성은 보다 부적으로 평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술적 의미에서는 일치되고 평가적 의미에서는 불일치되는 자극인물에서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변량분석을 시도한 결과는 특성간의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왔다[F(1,50)=13.16, p<.01]. 즉, 진보적 특성을 가진 인물이 보수적 특성을 가진 인물보다 더 좋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평정되었다. 그러나 집단에 따른 효과는 어떤 것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에서의 평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적 의미차원은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적차원과 정적차원의 두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지적차원은 어리석다-현명하다차원에서 정적차원은 차

갑다-따뜻하다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서 집단별 인상형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먼저 지적차원에서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2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자극인물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정적특성 자극인물이 부적특성 자극인물보다 더욱 현명한 것으로 나왔다[F(1,51)=128.83, p<.001]. 또한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F(1,51)=3.15, p=.08]. 감정공존집단이 감정부재집단보다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을 더욱 양극적으로 변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적차원에서의 평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위와와 마찬가지로 자극인물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52)=95.72, p<.001]. 그리고 여기서는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52)=5.98, p<.05]. 감정공존집단에서는 감정부재 집단에서보다 정적특성 자극인물은 더욱 따뜻하며, 부적특성 자극인물은 더욱 차갑다고 양극적으로 변별하고 있다.

그런데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분석에서는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지적차원과 정적차원 모두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적차원에서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2원변량분석을 하여 본 결과 유의하게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정적차원에서는 자극인물의 주효과만이 나왔다[F(1,52)=31.79, p<.001]. 진보적 인물이 보수적 인물보다 더 따뜻하다고 평정하였다. 표 5와 표 6의 결과에서 볼 때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결과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결과에서는 상

표 6. 불일치특성 자극인물에 대한 평가적 의미차원(지적차원과 정적차원)에서의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집 단	평가평정차원	자극인물의 특성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서술일치/평가불일치	
		R+R+C+C+	R-R-C-C-	R+R+R-R-	C+C+C-C-
감정공존집단	지적차원	5.44(1.25)	2.33(1.11)	3.70(1.56)	3.30(1.20)
	정적차원	5.67(1.24)	2.52(1.31)	3.85(1.17)	2.52(1.12)
감정부재집단	지적차원	5.04(1.16)	2.73(0.92)	3.93(1.07)	3.48(1.12)
	정적차원	5.11(1.50)	3.22(1.19)	3.85(1.06)	2.67(1.14)

표 7. 불일치특성 자극인물에 대한 서술적 의미차원(보수차원과 진보차원)에서의 집단별 평균(표준편차)

집 단	평정차원	자극인물의 특성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서술일치/평가불일치	
		R+R+C+C+	R-R-C-C-	R+R+R-R-	C+C+C-C-
감정공존집단	보수차원	5.44(1.74)	1.89(1.05)	2.04(0.90)	4.56(1.42)
	진보차원	5.81(1.39)	2.00(1.07)	5.33(1.39)	1.41(0.75)
감정부재집단	보수차원	5.41(1.28)	2.26(1.23)	2.33(0.83)	3.85(1.43)
	진보차원	5.44(1.34)	2.50(1.14)	4.96(1.34)	2.33(1.18)

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차이는 감정공존집단이 감정부재집단에 비하여 정적특성(R+R+C+C+)과 부정특성(R-R-C-C-) 자극인물을 보다 양극적으로 변별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는 집단간 효과가 평가적으로 일치되는 특성에서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서술적으로 일치되는 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차원을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꾸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7에서는 서술차원에서의 평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술적 의미차원은 보수차원으로 불안하다-안전하다 차원과 진보차원으로 진부하다-참신하다 차원에서 측정되었다.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에서 집단별 인상형성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먼저 보수차원에서의 평정 자료를 가지고 집단과 자극인물의 2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자극인물의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왔다[F(1,52)=164.25, p<.001]. 정적특성을 가진 인물은 안전하고 부정특성을 가진 인물은 불안하다고 보았다.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진보차원에서의 결과도 자극인물의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왔다[F(1,51)=157.43, p<.001]. 정적특성을 가진 인물은 참신하고 부정특성을 가진 인물은 진부하다고 보았다. 여기서도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자극인물을 서술차원에서 평정할 때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

에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보수차원에서의 평정 자료에 대한 변량분석에서 자극인물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진보특성(R+R+R-R-)을 불안하며, 보수특성(C+C+C-C-)을 안전하다고 보았다[F(1,52)=73.58, p<.001]. 또한 집단과 자극인물간의 상호작용도 유의하게 나왔다[F(1,52)=4.52, p<.05]. 감정공존집단에서는 감정부재집단에 비하여 진보적 자극인물을 더욱 불안하다고 보며, 보수적 자극인물을 더욱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전자에서는 후자에서보다 제시된 자극인물들을 더욱 양극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진보차원의 결과에서도 자극인물의 주효과[F(1,52)=183.79, p<.001]와 집단과 자극인물의 상호작용 효과[F(1,52)=7.19,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진보특성을 참신하며 보수특성을 진부하다고 보았다. 상호작용효과는 감정공존집단에서는 감정부재집단에 비하여 진보적 자극인물을 더욱 참신하다고 보며, 보수적 자극인물을 더욱 진부하다고 보고 있다. 전자에서는 후자에서보다 진보적 인물과 보수적 인물을 더욱 양극적으로 변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진보와 보수와 같은 서술차원에서 자극인물을 평정할 때는 서술적 의미에서는 일치하고 평가적 의미에서는 불일치하는 자극인물에 대해서만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자극인물을 서술차원에서 평정할 때는 집단간의 효과가 평가적으로 일치되는 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서술적으로 일치되는 특성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불일치 특성에 대한 평가차원에서의 평정결과와 서술차원에서의 평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감정공존집단의 특징은 제시된 자극인물이 서술적

의미에서 일치되며 평가적 의미에서는 불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주어진 특성들의 서술적 의미에 쫓아서 인상을 형성하며, 한편 자극인물이 평가적 의미에서 일치되며 서술적 의미에서 불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평가적 의미에 쫓아서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부재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경향이 감정공존집단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평가일치/서술불일치 특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서술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 보다 평가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 나타나며, 서술일치/평가불일치 특성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평가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 보다 서술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 나타난다는 결과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립태도의 두가지 유형 즉,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과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갖고 있지 않지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려 하였다. 두 사람이 비록 겉으로 나타난 태도는 동일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의 본질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태도대상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타인에 대한 특성정보를 처리할 때 전자는 주어진 특성이 갖고 있는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동시에 감안하여 처리하는 반면에 후자는 평가적 의미에 의해서만 처리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태도가 중립적인 감정공존집단과 감정부재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감정공존집단에서는 실험자가 제시한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차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제시된 성격특성의 의미를 달리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즉,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차원이 어리석다- 현명하다, 차갑다-따뜻하다와 같이 평가차원일 때는 주어진 성

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에 불안하다-안전하다, 진부하다-참신하다와 같이 서술차원일 때는 주어진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에 따라 인상을 형성하였다. 자극인물에 대한 평정차원이 평가차원일 때는 집단간의 차이가 자극인물의 서술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평가특성에서 나타나고, 한편 평정차원이 서술차원일 때는 집단간의 차이가 자극인물의 평가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서술특성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감정공존집단에서는 제시된 자극인물이 평가적 의미에서 불일치되고 서술적 의미에서는 일치되는 성격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제시된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에 자극인물이 서술적 의미에서 불일치되고 평가적 의미에서는 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실험에서 서술일치/평가불일치 조건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평가일치/서술불일치 조건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평정시켰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감정공존집단과 감정부재집단간의 차이는 한 마디로 전자는 주어진 장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성격특성들의 의미를 달리하여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에 후자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다. 감정공존집단에서는 주어진 장면이 평가적 판단을 요구할 때에는 제시된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에 쫓아서 인상을 형성하고 서술적 판단을 요구할 때에는 제시된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에 쫓아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공존집단에서는 제시된 자극인물이 평가적 의미에서 불일치되고 서술적 의미에서는 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성격특성의 서술적 의미에 토대해서 인상을 형성하며, 한편 자극인물이 서술적 의미에서 불일치되고 평가적 의미에서는 일치되는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성격특성의

평가적 의미에 토대해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자극인물에 관하여 주어진 정보들이 평가적 의미에서 모순될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이를 통합하며, 한편 서술적 의미에서 모순될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이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실험에서 평가적 평정차원에서의 결과는 이와 같은 결론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고 있다. 일치 정보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과 정적차원의 결과를 보면 정적차원에서는 집단과 자극인물의 평가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오지만 지적차원에서는 경향성만 보일 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불일치정보에 대한 분석에서도 지적과 정적차원의 결과를 보면 평가일치/서술불일치 특성에 대한 분석에서 정적차원에서는 집단과 자극인물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오지만 지적차원에서는 경향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공존집단에서는 감정부재집단과 달리 주어진 장면이 평가적 판단을 요구할 때에는 제시된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에 쫓아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결론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집단간 차이가 평가적 판단에서는 서술적 판단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본 실험에서 처음 세운 가설에서도 감정공존과 감정부재의 두 집단간에 평가적 판단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서술적 판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감정부재집단은 주어진 성격 특성들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만 통합하는 반면에 감정공존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와 함께 서술적 의미에서도 통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적 판단에서는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서술적 판단에서만 차이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평가적 판단에서도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감정공존집단은 감정부재집단보다 서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평가적 판단도 잘 하였다. 그렇다면 왜 평가적 판단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이 양극화하는가? 이에 대하여 아직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정부재집단

은 감정공존집단에 비하여 개개의 성격특성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를 분화해서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부재집단에서는 평가적 판단을 할 때 주어진 성격특성들의 평가적 의미가 서술적 의미에 의하여 오염이 되며, 또한 서술적 판단을 할 때는 주어진 성격특성들의 서술적 의미가 평가적 의미에 의하여 오염되기 때문에 판단이 전반적으로 중립화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한가지 가능성은 여기서 선정된 감정부재집단이 정적 감정도 부적 감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평가적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적도 부적도 감정이 없을 때 평가적 판단조차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가능성중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평가적 판단도 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얻어진 결과는 주어진 성격 특성들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통합하는 경향이 집단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정적 감정과 부적 감정이 공존하는 감정공존집단에서 이렇게 자극인물의 성격특성을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도 통합한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났다. 이수원과 김태준(1988)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개 기르기’에 대한 태도주제에서 조망확대 처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조망확대처치는 수업시간에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학습주제를 내걸고 개기르기를 반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역할놀이를 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역할처치 전에는 개기르기에 대하여 찬성조망 즉, ‘놀이’ 가치에서만 보던 아이들이 역할처치 후에는 반대조망 즉, ‘일’ 가치에서도 보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역할처치 전에는 개를 기르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안기르는 것은 싫은 것이라는 평가차원에서만 보다가, 역할처치 후에는 개를 기르는 것은 재미있고 즐겁지만, 그대신 안기르는 것은 깨끗하고 편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개를 기르는 것을 놀이감-일거리의 서술차원에서 보게 되었다.

여기서 역할처치의 효과는 개기르기에 대하여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역할처치를 통해서 조망이 확대되면 주어진 태도대상의 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수원(1995)은 최근에 태도대상에 대한 조망이 확대되면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서 개인의 태도구조가 이원구조가 된다는 것은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한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서로 독립된 것으로서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개인내에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공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인내에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게 되면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이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주어진 태도대상을 '나쁘다' 또는 '좋다'와 같이 호오차원에서 지각하지 않고 '보수적이다' 또는 '진보적이다'와 같이 서술차원에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sch와 Zukier(1984)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어진 자극인물에 대하여 정적특성과 부정특성을 함께 제시하고 예컨대, '총명하다'와 '우둔하다' 또는 '관대하다'와 '인색하다'와 같이 평가적 의미에서 서로 반대되는 특성들을 함께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인상을 자유롭게 기술토록하면 이들에 대한 인상을 평가차원에서 형성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공부에서는 총명하지만 사회생활은 우둔하다든지, 또는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색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방식의 인상형성은 주어진 특성들의 서술적 의미를 살려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적 의미에서 서로 모순되는 정적 특성과 부정 특성을 통합할 때 사람들은 이를 평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주어진 특성들의 서술적 의미를 살려 서술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인상형성에서 자극인물에 대하여 불일치된 정보를 주었을 때 그에 대한 인상을 평가차원에서 형성하지 않고 서술차원에서 형성한다는 결과는 이들의 연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Hamilton과 Zanna(1974)는

성격특성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는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상형성에서 맥락효과를 분석하였다. 예컨대, '자신 있다'와 '자만하다'는 서술적 의미에서는 다같이 '자존적이다'를 지칭하는데 평가적 의미에서는 전자는 정적인 것이고 후자는 부정적인 것이다. 또한 '겸손하다'와 '비굴하다'는 서술적 의미에서는 다같이 '겸양적이다'를 지칭하는데 평가적 의미에서는 전자는 정적이고 후자는 부정적이다. 여기서 그들은 제시된 맥락을 달리하여 '자존적이다' 특성을 자신있다-자만하다 차원에서 평정시켰다. 그 결과 '자존적이다' 특성이 긍정적 맥락에서는 '자신있다'의 의미를 갖게 되며, 부정적 맥락에서는 '자만하다'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에서 볼 때 '자신있다'와 '자만하다'는 비록 평가적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서술적 의미에서는 같은 것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겸손하다'와 '비굴하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볼 때 평가적 의미에서 서로 모순되는 특성이라 하더라도 서술적 의미에서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적 의미에서 모순되는 정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를 서로 모순되는 평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모순이 없는 서술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해결이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을 공유한 감정공존집단에서만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감정부재집단에서는 비록 평가적으로 모순되는 정보에 노출될 때에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차원에서만 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모순'을 모순으로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모순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들의 정보값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왜곡은 정보값의 절감화(discounting)를 가져온다. 정보의 절감화는 모순되는 정보들에 직면하여 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개개의 정보값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인상통합에서 평균모델은 정보절감화의 대표적인 예

라고 볼 수 있다. Schneider, Hastorf 및 Ellsworth (1979)는 인상형성과정에 대한 가중평균설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절감화에 의해서 인상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상형성에서 가중평균설을 주장한 Anderson과 Jacobson(1965)은 초두효과나 최신효과와 같은 정보의 제시순서효과를 주어진 정보값의 절감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제시한 Asch(1946)의 의미변화설과 Anderson(1966)의 가중평균설간의 논쟁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개인의 태도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감정공존집단에서는 평가적으로 불일치하는 정보에 접하게 되면 이를 평가차원에서 통합하지 않고 서술차원에서 통합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의 의미자체도 평가적 의미에서 서술적 의미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이 집단의 결과에서만 보게 되면 의미변화설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감정부재집단에서의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집단에서의 결과는 불일치되는 정보들에 직면해서 정보의 의미를 바꾸기보다는 주어진 정보들의 정보값을 가지고 평균을 산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정보들의 정보값에 대한 절감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의 결과는 가중평균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미변화설과 가중평균설간의 논쟁은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지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사실 개인의 인지구조에 따라서 모순된 정보를 통합하는 양식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그 동안 다각적으로 나타났다. Crockett(1965)은 인지구조가 복잡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에 비하여 타인에 대한 모순된 정보를 감내하는 능력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상통합에서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과 단순한 사람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Mayo와 Crockett(1964)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인상통합에서 나타나는 자극제시순서 효과중에 하나인 최신효과가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인지적으로 단순한 사람은 모순된 정보들을

직면하면 이를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의 정보값을 절감해서라도 통일된 인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처음에 형성한 인상과 불일치하는 정보가 새로이 제시되면 이 나중정보에 의해서 처음에 인상을 쉽게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Leventhal과 Singer(1964)도 인지적으로 단순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부정하는 정보에 접하게 되면 이에 영향을 받아 쉽게 자기의 처음 의사를 바꾸는 반면에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은 이들 두 정보를 분화시킴으로서 두 정보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Schneider, Hastorf, 및 Ellsworth(1979)는 인지적으로 단순한 사람은 불일치 정보를 처리할 때 절감기제를 사용하는 반면에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은 정보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관계기제(relational mechanism)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관계기제를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재해석하면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서의 의미변화기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은 평가적으로 모순된 정보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평가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 즉, 서술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보간에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의 사용은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구조가 복잡한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개인의 태도구조에서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다. 본 연구는 중립태도의 두 유형 즉, 정적 감정과 부정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과 정적 감정도 부정 감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보면 이 두 중립태도는 그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 전자는 주어진 태도대상의 의미를 평가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서술적 의미에서도 지각하는 반면에 후자는 평가적 의미에서만 지각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자에서는 태도대상에 관한 정보들이 평가적 의미에서

서로 모순될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토대해서 이를 해결하며 또한 서술적 의미에서 서로 모순될 때에는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이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전자는 후자와 비교할 때 주어진 태도대상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지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은 감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립태도가 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즉, 서술적 의미를 주어진 태도대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광엽(1995). 조직 갈등에서 조망확대의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수원(1995).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개인내 태도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14권, 1호, 1-32.

이수원·김태준(1988). 조망과 태도: 태도의 변형생성 모형,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7권 2호, 75-95.

이수원·박광엽(1989). 조망의 확대와 평가의 보존,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4권 2호, 33-49.

이수원, 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차원의 변형생성과정, 한국심리학회지:사회, 제4권 1호, 155-181.

Abelson, R. P., Kinder, D. R., Peters, M. D. & Fiske, S. T.(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olitical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19-630.

Andersen, N. H.(1971). Component ratings in impression formation, *Psychonomic Science*, 6, 170-80.

Asch, S. E. & Zukier, H.(1984). Thinking about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230-1240.

Asch, S. E.(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Cacioppo, J. T. & Berntson, G. G. (1994).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evaluative space: A critical review with emphasis on the separabi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substrates, *Psychological Bulletin*, 115, 401-423.

Converse, P. E.(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the mass public. In D.E.apter(Ed.), *Ideology and discontent*(pp. 206-261). New York: The Free Press

Crockett, W. H.(1965). Cognitive complexity and impression formation in the role of unit formation and schematic expect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49-62.

David J. Schneider Albert H. Hastorf Phoebe C. Ellsworth(1979). *Person Perception*. Mass: Addison-Wesley

Hamilton, D. L. & Zanna, M. P.(1974). Context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changes in connotative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649-654.

Katz, I.(1981). *Stigma: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Hillsdale, NJ:Erlbaum.

Hinton, P. R.(1993).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Routledge.

Leventhal, H. & Singer, D. L.(1964). Cognitive complexity, impression formation and impression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10-226.

Mayo, C. W. & Crockett, W. H.(1964). Cognitive complexity and primary-recency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335-388.

Peabody, D.(1967). Trait inference :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y*, 7, (Whole No. 644).

Shanteau, J. & Nagy, G. F.(1984). Information integra-

tion in person perception: theory and application,
in M. Cook(ed.) *Issues in Person Perception*,
London: Methuen.

Tetlock, P. E.(1986). A value pluralism model of
id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819-827.

The Differences of Information Integration Mode Between two Types of Neutral Attitudes

Lee Soo-Won and Lee Ji-Yun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modes of information processing : information processing based on affect-ambivalent neutral attitude and an affect-absent neutral attitude. The hypothesis is that facing up to inconsistent information for a target person, subjects with affect-ambivalent neutral attitudes process information both evaluatively and descriptively, while subjects with affect-absent neutral attitudes process information only evaluatively. Th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First, subjects with affect-ambivalent neutral attitudes perceive differently the meaning of stimuli traits to rating scale presented. Specifically, when an evaluative scale is presented, subjects perceived the evaluative meaning of stimuli traits and when an descriptive scale is presented, subjects perceived the descriptive meaning of stimuli traits. Second, when stimuli traits are evaluatively inconsistent, the stimuli traits were processed based on a descriptive meaning. On the other hand, when given stimuli traits are descriptively inconsistent, the stimuli traits were processed based on a evaluative meaning.